

1926~1932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張信*

I. 머리말	IV. 『조선지광』의 편집과 기획
II. 『조선지광』의 월간 전환과 발행 상황	V. 조선지광사의 경영
III. 『조선지광』과 공산당	VI.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지광』은 1922년 11월에 창간해서 1932년 3월에 101호로 종간한 시사잡지였다. 이 논문은 월간으로 발행한 1926년 11월부터 발행상황, 편집방침, 경영, 공산당과 관계 등을 다뤘는데 편집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26년 11월(61호)부터 1927년 8월(70호)까지다. 조선공산당의 고려공산 청년회가 기관지로 이용하면서 조공과 공청의 주요 간부들이 편집과 투고로 참여했다. 논전을 통해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당면 문제에 개입하고 지도하려고 했던 때였다. 발행과 경영 모두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이때 만든 편집의 틀과 기획은 종간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2기는 1927년 9월(71호)부터 1928년 7월(79호)까지다. 당원과 지식인을 넘어 독자 확대를 위해 지면의 대중화를 모색했다. 수필란과 강좌를 신설해서 독자에게 교양과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독자 확대를 위해 정가를 50전에서 30전으로 내렸다. 1928년 2월에 조공의 기관지로 되었지만 이 무렵부터 조공과 관계 있는 사원의 검거가 계속되면서 조선지광사에 위기가 닥쳤다. 결호와 합병호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정기 발행의 틀이 깨진 때였다. 제3기는 1928년 9월(80호)부터 1932년 3월(101호)까지다. 사원의 잇달은 검거와 도피로 기존의 편집진이 붕괴되고 조공과 관계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조교수

끊어졌다. 사회주의 색채는 남았지만 성격이 모호했다. 잦은 결호와 발행 지연으로 독자는 줄고 경영난이 심해졌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101호를 끝으로 소리소문 없이 중단했다.

주제어 :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김동혁, 검열, 카프

I. 머리말

『조선지광』은 1922년 11월에 창간하여 1932년 3월에 중간한, 백호 넘게 발행된 잡지였다.¹⁾ 「신문지법」에 따라 정치와 시사를 다룰 수 있었으며 종교계 잡지를 제외하면 가장 오랜 기간동안 발행된 잡지 중의 하나였다. 식민지 조선의 어느 잡지처럼 발행 기간 내내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발행인의 변경, 월간에서 주간으로 다시 월간으로 같은 발행 간기의 변경, 잦은 압수와 삭제, 경영난으로 인한 결호와 합병호 발행, 기자의 체포와 구속 등이 있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1920년대 전반의 『開闢』과 1930년대의 『三千里』를 잇는 잡지로서, 192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잡지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발행되던 시기의 『조선지광』이 겪었던 부침을 다룬 글은 있었지만²⁾ 월간으로 발행되던 『조선지광』을 전면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잡지 자체는 아닐지라도 이 글에서도 다루는 『조선지광』의 기획과 논쟁 등은 어느 정도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예를 들어 1927~1928년간 『조선지광』 지상에서 벌어진 유물론과 유심론 논쟁(소위 ‘유물-유심’ 논쟁),³⁾ 유물론 내부의 ‘유물 논쟁’⁴⁾ 등이다. 사회주의의 통계 해석과 수집, 신어 사전의 기획 등도 분석되었다.⁵⁾ 흔히 연구자들이 ‘양당론’과 ‘청산론’ 등으로 부른 사회운동 논쟁도 『조선지광』을 한 축으로 전개되었다.⁶⁾

-
- 1) 『조선지광』의 영문 표기는 창간호에서 THE CHOSUN CHI KWANG이었다. 주간으로 발행할 때는 아무런 표기도 없었다. 월간으로 전환한 제61호부터 앞 표지에 THE LIGHT로, 제64호부터 뒷 표지에 창간호 때의 THE CHOSUN CHI KWANG을 병기하였다.
 - 2) 장신, 「『週報 朝鮮之光』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 3) 박민철·이병수, 「192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맑스주의 수용 양상과 의미」, 『한국학연구』 5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4) 최병구, 「신체의 유물론과 프로문학-1927년 『조선지광』의 유물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53, 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이병태, 「1920년대 『조선지광』의 유물론 수용이 지닌 사상사적 함의: 주요 논쟁 분석 및 『개벽』 유물론 수용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8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 5) 장문석, 「사회주의와 통계-연구노트」,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장성규, 「식민지 근대성과 두 개의 ‘지식’ 개념-근대 지식 개념의 형성·경합·분화(2)」, 『춘원연구학보』 20, 춘원연구학회, 2021.
 - 6) 양당론과 청산론 등을 다룬 성과는 적지 않지만 코민테른의 비밀문서 해제에 따른 새로운 자료의 공개를 바탕으로 전개된 논쟁 상황을 이해하려면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김영진, 「1927년 하반기

월간 『조선지광』은 일찍부터 사회주의 잡지로 분류되었다.⁷⁾ 얼마되지 않는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조선지광』의 연결 키워드는 사회주의였다. 더 나가면 ‘공산당의 기관지’ 여부였다. 한기형은 『조선지광』의 월간지 전환을 “개벽의 폐간으로 생겨난 공백을 대신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결정”으로 보고 『조선지광』이 사회주의 관련 합법 잡지의 역사에서 『개벽』의 후계자 위치에 놓였지만 “개벽의 중심성”을 끝내 대신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했다.⁸⁾ 결과적으로 『조선지광』이 『개벽』만큼의 위상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개벽』의 공백을 대신하려는 사회주의자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조선지광』은 『개벽』의 폐간 이전부터 사회주의자들이 노렸던 선전수단이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조선지광』의 월간 전환 이후 발행 상황이다. 발행의 정기성, 휴간과 중간에 이르는 과정을 ‘편집후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둘째는 편집방침이다. 우선 조선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의 관계, 곧 기관지 여부와 역할을 살폈다. 이에 따른 시기 구분과 편집의 변화를 추적한다. 셋째로 경영난의 실체이다. 구독자 수와 전국 분포, 광고 면수, 정가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종래 영인본의 불비함 때문에 『조선지광』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과 와세대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호수를 확보하여 이용하였다.⁹⁾

II. 『조선지광』의 월간 전환과 발행 상황

『조선지광』 창간호는 1922년 11월 1일에 나왔다. 발행인은 장도빈이었다. 의욕적

식민지 정치운동 논쟁, 『역사연구』 42, 역사학연구소, 2021.

7) 유재천, 「일제하 한국잡지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15,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8; 김민환, 「일제하 좌파 잡지의 사회주의 논설 내용 분석」, 『한국언론학보』 49(1), 2005;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1925년부터 1936년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지국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4),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등.

8)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189~193면.

9) 자료를 제공해주신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

인 출발과 달리 제2호는 압수되고 제3호를 끝으로 휴간하였다. 이후 김동혁이 『조선지광』을 인수하여 1924년 5월 3일에 제4호를 발간하였다. 주간 발행이어서 제호도 『주보 조선지광』이었다. 속간호인 제4호부터 1924년 11월 22일의 제13호까지 모두 7회나 압수를 당하였다. 그 이후에도 세 차례의 압수는 있었지만 1926년 7월 무렵의 제57호까지 무난하게 발행하였다. 1926년 11월호부터 월간으로 전환했지만 이전 8월호부터 월간지의 형태를 띠었다.¹⁰⁾

〈표 1〉 월간 『조선지광』의 발행 상황

연도	발행일	인쇄일	통권	월호	가격	면수			비고
						시사	문예	계	
1926	8.10	8.10	58호		10전	21	19	40	주보
			59호			22			
			60호						미발굴
	11. 1	11. 1	61호	11월호	50전	58	72	130	월간
	12. 1	12. 1	62호	12월호	50전	61	76	137	
1927	1. 1	1. 1	63호	신년특대호	50전				
	2. 1	2. 1	64호	2월호	50전	90	56	146	
	3. 1	3. 1	65호	3월호	50전	98	46	146	
	4. 1	4. 1	66호	4월특대호	50전	121	49	170	압수
	5. 1	4.30	67호	5월호	50전	81	40	121	
	6. 1		68호	6월호	50전	96	56	152	
	7. 1	7. 1	69호	7월호	50전	88	63	151	
	8. 1	8. 1	70호	8월호	30전	82	67	149	
	9. 1	8.31	71호	9월호	30전	94	48	142	
	10. 1	9.30	72호	10월호	30전	104	55	159	
	11. 1	10.31	73호	11월호	30전	103	38	141	
	12. 1	12. 1	74호	12월호	30전	90	39	129	압수

10) 장신, 앞의 논문, 441~449면.

11) 겉표지에는 '1월호'를 덧붙이고 속표지에는 '2월 합호'라 표기했다. 1932년 2월 3일 7면 『조선일보』 광고에는 '一二月合號'로 적었다.

1928	1. 1	1. 1	75호	신년호	50전	135	61	196	
	2. 1	2. 1	76호	2월호	30전	71	76	147	
	4. 1	4. 1	77호	3·4월합병호	30전	81	70	151	
	5.10	5. 8	78호	5월호	30전			129	
	7. 1	7. 1	79호	7월호	30전	68	53	121	
	9. 1	9. 1	80호	9월호	30전	61	28	89	
	11. 1	11. 1	81호	11·12월합병호	30전	50	70	120	
1929	1. 1	1. 1	82호	신년특대호	50전	78	132	210	
	2. 1	2. 1	83호	2월호	40전	64	96	160	
	4. 1	4. 1	84호	4월특별호	40전	90	95	185	졸업논문호
	6. 1	6. 1	85호	6월특집	50전	60	107	167	生活改新 問題號
	8. 1	8. 1	86호	8월호	40전	74	93	167	
	9. 1	9. 1	87호	9월특집	50전	124	56	180	농촌당면 문제호
	11. 1	11. 1	88호	11월호	40전	64	75	139	
1930	1. 5	1. 1	89호	신년호	50전	135	107	242	
	3. 1	3. 1	90호	3월호	40전	72	70	142	
	6. 1	6. 1	91호	6월호	40전	67	77	144	
	8.18	8.18	92호	8월호	20전	27	32	59	
	11.18	10.30	93호	11월호	20전	23	28	51	
1931	1.18	1. 1	94호	1·2월합호	30전	73	52	125	
	4.18	4. 1	95호	4월호	20전	49	11	60	
	5.18	5.15	96호	5월호	20전	29	10	39	46배판
			97호	7·8월합병호	10전				압수
			98호						미발굴
		99호						미발굴	
1932	1.18		100호	1월호 ¹¹⁾	20전	54	31	85	
			101호	3월호	20전				미발굴

〈표 1〉은 월간지 전환 이후 『조선지광』의 발행상황을 정리했다. 발행일과 인쇄일은 표지와 판권지로 확인 가능한 날짜만 기록했다. 기록에 따랐지만 발행일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매월의 발행일은 고정인데 「편집후기」에 이르거나 늦었다는 문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1927년 5월의 제64호 「편집여언」에서는 “來月號부터는 前과 갓치 每月 二十四五日까지에는 雜誌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잡지가 제대로 나올 때는 발행일보다 일찍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기 발행일조차 지키지 못했다. 1928년 9월 1일에 발행되었다는 제80호의 경우 9월 15일 즈음에 나왔다. 1929년 9월 1일 발행의 제87호도 1일 이후에 발행되었다.¹²⁾

편집의 측면에서 시사와 문예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문예란을 부록처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을 섞어서 편집한 경우도 적지 않다. 원칙적으로 수필과 영화평론을 문예란에 포함하였는데¹³⁾ 시와 소설 등의 창작과 문예비평만 인정할 경우 면수가 적어질 수도 있다.

새로 밝혀진 사실은 필자를 포함해서 김근수나¹⁴⁾ 최덕교¹⁵⁾ 등 선행 연구 모두 『조선지광』의 중간호를 1932년 2월의 제100호로 보았다. 그런데 아직 실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광고와 신간 소개에 1932년 3월호의 출간을 알리고 있다.¹⁶⁾ 이로 볼 때 『조선지광』의 중간호는 1932년 3월의 제101호로 봐야 하겠다.

『조선지광』은 월간으로 전환한 1927년에는 결호가 없었지만 1928년에 7회, 1929년에 7회, 1930년에 5회, 1931년에 6회만 발간하는 등 합병호와 휴간이 잦았다. 1928년 2월의 제76호부터 조집이 시작되었다.

이번 號는 너무 느저졌다. 실상 이번 號처럼 여러 가지로 支障되는 일이 만

12) 「編輯後記」, 『朝鮮之光』 80, 1928.9 ; 「編輯餘言」, 『朝鮮之光』 87, 1929.9.

13) 영화평(론)은 1929년부터 등장하였다.

14) 金根洙, 「「文化政治」標榜時代(前期)의 雜誌概觀(1920~1929)」, 金根洙 編著,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1973, 332면. 그런데 같은 책 178면에서는 “1930년 11월 1일에 통권 100호”로 중간했다고 잘못 썼다.

15)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63면. “제100호인 1932년 1·2월 합병호를 2월에 내놓고는 중간”.

16) 「광고」, 『조선일보』 1932.3.23(7) ; 「新刊紹介」, 『조선일보』 1932.3.25(4) ; 「新刊紹介」, 『中央日報』 1932.4.2(3)

흔 적은 업설든 듯 심게 생각된다. 그래서 自然히 이 二月號 編輯에 對한 計劃도 당초와는 아주 틀너졌다.(76호, 1928년 2월호)

이번號는 느저도 三月 五日까지에는 내려고 했든 것이 여러 가지 支障되는 일로 말미아마 三月號를 내지 못하고 三四月合併號이나 編輯內容이 貧弱한 것은 讀者諸氏에게 對하야 實로 未安한 일이다.(77호, 1928년 3월호)

이번號는 꼭, 일즉이 내보자 한 것이 亦是 豫定과 갖지 못하였다. 달마다 「來月에는 일즉이 내노켓다」는 豫告를 하고서 번번히 그러치 못하게 되니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하야 實로 讀者諸氏에게 未安하기 莫甚한 일이다마는 四圍의 事情이 그러치 못한 것을 엿지 하랴? 이만 것이라도 다달이 내놓는 것은 「經濟難」으로나 「原稿難」으로나 實로 여간 힘이 들지 않는다. (제78호, 1928년 5월호)

문저달 雜誌編輯을 맞치고 우리는 讀者諸君에게 이리케 約束하였다. 「다음號는 꼭 期日 안으로 내노켓다」고, 하나 이번號는 느저도 엄청나게 느저썩었다.(79호, 1928년 7월호)¹⁷⁾

「편집후기」에서 밝힌 발행의 지체는 경제난(또는 경영난)과 원고난이었다. 경제난은 구독료에 의존하는 조선지광사의 지속적인 문제였고 원고난은 검열타이 컸다. 처음으로 3·4월 합병호를 내면서 일회성이라 여겼지만 6월호도 발행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6월호를 휴간했던만큼 7월호 발행에 애썼지만 잡지 편집을 거의 마친 6월 19일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조선공산당 제4차 탄압 사건의 여파로 발행인 김동혁과 주간 이성태를 비롯한 잡지사 직원 7명이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다.¹⁸⁾ 이성태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은 6월 23일에 풀려났지만¹⁹⁾ 뒤숭숭한 상태에서 잡지 제작은 여의

17) 6월호 없이 7월 1일에 칠월호 발간했다.

18) 「某雜誌社襲擊 七名을 檢舉」, 『동아일보』 1928.6.20.(2). “십구일 오전 여덟시경에 부내 종로서 고등계에서는 돌연히 형사대를 부내 모방면에 출동케 하여 모잡지사를 중심으로 가택수색을 엄밀히 하는 한편으로 중요 간부 김모(金某) 리모(李某) 등의 일곱명을 검거하야 동서에 인치하고 취도를 엄중히 하는 중이러는데 사건내용은 절대 비밀에 부치나 동서 고등계는 의연히 긴장하야 이미 가택수색을 한 동잡지사에 형사 수명을 직히게 하야 엄중한 경계를 하는 한편으로”

19) 「鍾路署에 逮捕된 六氏無事放免」, 『동아일보』 1928.6.25.(2). “수일 전에 부내 종로서 고등계의 손에 검거되었든 김동혁(金東赫)씨 이하 일곱사람은 그동안 취도를 밟다가 이십삼일 정오에 김동혁 김복진(金復鎭), 리기영(李箕永), 김소익(金小翊), 오재현(吳載賢), 권경득(權庚得) 등 제씨는 무사 석방되고 그밖에 리모(李某)만 아즉 취도를 밟는 중이러는데 그가튼 검거를 보게된 내용은 아즉도 절대 비밀에 부친다더라”; 「鍾路署 俄然活動 朝鮮之光社를 包圍」, 『중외일보』 1928.6.20.(2). 중외일보는 권경득 대신에 성경덕(成景惠)으로 보도했다.

치 않았다. 이 여파는 제80호에도 미쳤다.

발서 두어달 전부터 八月號를 形容만이라도 發行해보라고 努力하였으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안에서 그러면 八月號는 休刊하고 九月號나 일즉이 내노차 한 것이 그間に 또 不意의 患難이 닥쳐서 이것저것 도모지 경황이 업시 지났었다. 그러나 九月號도 또 못나온다 하면 讀者에게 - 더구나 先金讀者에게 如干 未安한 일이 안이어서 비록 貧弱은 할지연정 期於히 發行해야겠다고 말하자면 極力 全力努力 해본 것이 「겨우 이러케 貧弱」한 內容을 가진 九月號 - 게다가 九月이 다가서 차라리 十月號랏스면 조흔 九月號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도 勿論 그러면 일즉이나 나오도록 해보라고 느저도 九月 十五日 以內로 出來해 보라한 것이 그 亦是 如意치 못한 것이다.(제80호, 1928년 9월호)

지난 九月號를 그저 塞責으로나마 貧弱하게 내노코 이제 다시 두달만에 十一月十二月 合併號를 내노케 되고 보니 其間 編輯子의 悲痛은 말할 것도 업다마는 第一 讀者諸氏에게 未安하기 짝이 업다. 이것이 勿論 本社員의 不敏한 責任도 업지 안켓지마는 周圍의 事情上 不得已함에도 잇다 한다. (중략-인용자) 그것은 本誌가 每月 刊行되지 못하고 또한 新聞廣告도 내지 못한 咎문인지는 모르나 讀者中 에는 本誌가 續刊되지 못하는 것 갖치 아는 이도 잇는 것 갖기에 말이다. (제81호, 1928년 11월호)

8월호를 휴간하고 9월호라도 제대로 내자고 했지만 6월 23일에 풀려났던 김동혁이 8월 20일에 재령에서, 8월 25일에 회계인 오재현이 조선지광사에서 다시 경기도경찰부에 체포되었다.²⁰⁾ 6월 23일에 함께 풀려났던 김소익은 일본으로 도망했고,²¹⁾ 김복진도 경기도경찰부의 체포망을 피해 도피중이었다.²²⁾ 김동혁은 9월 20일에 석방되었다.²³⁾ 그래서 9월호는 발행인도 기자도 없어서 내용도 빈약한데 발행일도 10월호에

20) 「連日東馳西驅하는 道高等課刑事隊」, 『중외일보』 1928.8.22.(2);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오재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1) 「용의조선인명부(김봉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봉렬은 김소익의 이명이다.

22) 京西高秘 제4628호(1928.9.12), 「學校盟休와 朝鮮學生科學研究會의 行動에 關한 件」, 『學生盟休에 關한 情報綴』; 京西高秘 제4628호(1928.9.24.), 「學校盟休와 朝鮮學生科學研究會의 行動에 關한 件」, 『學生盟休에 關한 情報綴』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복진은 9월 12일 보고서에서는 미체포 상태였는데 9월 24일 보고서에서는 경기도경찰부에 체포된 것으로 나온다.

가까운 15일 언저리에 발행되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11월호와 12월호도 합병호로 나왔다. 이렇게 매달 간행되지 않고 신문광고도 내지 못하니²⁴⁾ 속간되지 못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1929년에도 3월호와 5월호를 내지 못했지만 경성제대 졸업생의 ‘졸업논문호’와 ‘생활개신문제호’ 등 특집호를 기획하는 등 의욕적인 발행에 나섰다. 5월호의 휴간은 사육 이전 때문이라고 「사고」를 통해 알렸고²⁵⁾ 7월호는 원고난 때문에 쉬었다. 9월호에는 조선박람회 특별부록을 기획하였다.²⁶⁾ 상반기의 의욕과 달리 9월호도 늦었는데 원고난이 핑계였다. 매번 그렇듯이 “四圍의 사정”으로 10월호를 휴간하고 11월호를 내면서 송년호를 기대하라고 약속했지만 12월호도 핑크였다.

1930년에도 매호 정기발행을 다짐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간하거나 예정보다 늦게 발행하였다. 충실한 내용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래도 빈약하지 않음을 애써 위안하면서 독자의 一讀을 요청하면서 다음 5월호는 특대호 편집을 예고했다.²⁷⁾ 약속도 무색하게 “곤란한 사정”은 여전해서 두 달을 연속으로 휴간했다. 내용도 빈약해서 휴간하는지 아니면 잦은 휴간으로 내용이 빈약해졌는지 모르지만 두세달 휴간은 예사였다. 1930년 11월의 제93호에는 「편집후기」조차 실리지 않았다.

1930년 12월에 발행인 김동혁은 경영난을 해결하려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었다. 새 이사진은 方應謨, 白鶴濟, 김동혁, 白麟濟, 辛泰嶽의 5인이었고 대표이사는 백학제였다.²⁸⁾ 백학제는 정주식산조합 조합장과 동아일보 정주지국장 등 주로 평북 정주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1932년에는 경성의 전조선농민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²⁹⁾ 백인제도 정주 출신으로서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당시는 경성의전의 강사였다. 방응모도 정주 사람으로서 금광으로 부를 획득하였다. 신태약은 1920년대에 청년

23)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김동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4) 대개의 월간잡지는 발행과 함께 주요 신문에 기사와 필자를 담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광고를 실을 형편이 못되면 잡지를 신문사에 보내서 짚막한 신간소개라도 실려야 독자들이 발행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5) 「編輯餘言」, 『朝鮮之光』 85, 1929.6.

26) 「編輯餘言」, 『朝鮮之光』 86, 1929.8.

27) 「編輯後記」, 『朝鮮之光』 90, 1930.3.

28) 「朝鮮之光 事務大擴張」, 『朝鮮日報』 1930.12.23(2)

29) 「定州殖産組合總會」, 『매일신보』 1928.9.16(4); 「全農傍系機關으로 協同貿易設置」, 『매일신보』 1932.4.4(2)

운동을 하다가 1926년 1월 이후 일월회에서 활동했다.³⁰⁾ 1927년 5월 백학제가 동아일보 정주지국장을 맡을 때 방응모가 고문을 맡은 인연이 있다.³¹⁾ 새 경영진은 사옥 건축과 발행 부수 증가³²⁾ 등 사세 확장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1931년의 「편집후기」에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찾을 수 없지만 격월간 발행은 여전했다.

다시 一言할 것은 조선에 있어서 유일의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 조선지광이 두 달이나 석 달에 한번씩 내용도 보잘 것 업시 내어놓는 - 출판법에 의한 잡지가 每月刊 期限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 조선지광을 이삼개월만에 1회나 겨우 내놓는데 그 내용조차 ○○(판독불능-인용자)한 것을 보고 조선지광 편집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조선지광이란 역사 깃흔 잡지를 소생케할 노력을 가지기를 바란다.³³⁾

독자로부터 출판법 잡지보다 못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제발 “무슨 방법으로든지 조선지광이란 역사 깃흔 잡지를 소생케할 노력”을 가지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조선지광』은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했다.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기발행을 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언제나 그렇게 될지 예측하기 곤란하여서 조선지광사는 기다리는 독자를 위해 『조선지광』 발행을 포기하고 9월부터 월간잡지 『신계단』을 새로 발간한다고 알렸다.³⁴⁾ 제101호가 나온지 다섯달 만에 나온 소식이었다.

Ⅲ. 『조선지광』과 공산당

잡지 『조선지광』의 성격을 규정할 때 사회주의를 떼어놓을 수 없지만 어느 그룹과

30)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398면. 1931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1932년 4월에 경성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31) 「社告」, 『동아일보』 1927.5.27(6); 「社告」, 『동아일보』 1932.2.3.(3). 백학제는 1932년 2월 1일자로 정주지국장에서 물러났다.

32) 「朝鮮之光 擴充」, 『동아일보』 1930.12.23(2)

33) 一步生, 「九月雜誌評(完)」, 『조선일보』 1931.9.15(4)

34) 「新階段 發行」, 『동아일보』 1932.8.11(2)

관계를 맺었는지, 언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과 함께 결성된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 박헌영이 1925년 9월 13일자로 국제공청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공청 기관지 발행비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월간 잡지 『신홍청년』의 발행비로 400루블, 그리고 월간 신문 『조선지광』의 몫으로 800루블을 책정하고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덧붙였다.³⁵⁾ 1925년 10월에 작성된 고려공청의 사업보고서에도 기관지 항목에 『신홍청년』과 『조선지광』을 언급하면서 “속히 후원하라”고 하였다.

박헌영의 후임으로 고려공청의 책임비서로 된 권오설은 1926년 1월 31일에 중앙위원 김동명과 함께 국제공청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목할 것은, 체포사태 후의 중앙위원회 활동이란 항목에서 “우리의 기관지 『조선지광』(당과 공동으로 발행함)은 체포사태 후에도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다. 이미 6개 호(29~34호)가 발간되었다. 마지막 34호는 1926년 1월 2일에 나왔다”고 선동사업의 현황을 보고했다.³⁶⁾ 또 다른 항목에서 “잡지 『조선지광』은 고려공청회의 기관지이다”라고 썼다.³⁷⁾ 29호부터는 대략 1925년 12월에 발간되었는데 ‘신의주사건’ 이후이다. 보고가 사실이라면 판권(발행권)의 인수 없이 편집권을 장악했다는 뜻이다. 1925년 7월부터 『조선지광』의 편집을 맡았던 김경재는 기관지설을 부인했다. 기관지로서 『조선지광』을 보호하려는 허위진술일 가능성도 있다.³⁸⁾

1926년 6월 조선공산당 제2차 탄압사건 이후에도 고려공청이 『조선지광』을 기관지로 확보하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다는 보고가 있다. 9월 5일에 열린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출판 문제로 “현재 우리에게는 지도적 이론 서적과 현장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관지인 『조선지광』과 『대중신문』을 해당 재료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³⁹⁾ 이 고려공청은 기존의 경쟁 또는 대립하던 두 공청의 ‘합청’에 따른 결과였다.⁴⁰⁾ 도쿄의 일월회가 1926년 5월에 창간한 『대중신

35) 이완중 역, 『러시아문서보관소자료집 3-고려공산청년회 1』, 한울, 2022, 303면.

36) 이완중 역, 앞의 책, 319면.

37) 이완중 역, 앞의 책, 322면.

38) 필자는 2011년의 논문에서 김경재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선지광』의 고려공청 기관지설을 부정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정정한다.

39) 이재훈 역, 『러시아문서보관소자료집 4-고려공산청년회 2』, 한울, 2022, 76면.

40) 박종린, 「1920년대 ‘통일조선공산당’의 결성과정」,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 247~

문』을 공청의 기관지로 천명한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있다.

1926년 12월 18일 고려공산청년회 대표 지모사와 이정운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국제공청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울청년회 공청 그루빠의 고려공산청년회 가입 전후, 곧 합청 후 고려공산청년회의 활동 보고서가 있다. 9월의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출판 분야에서는 잡지 『조선지광』과 일본에서 간행되는 주간신문 『대중신문』이 거의 전적으로 공청원들의 힘으로 발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⁴¹⁾

1927년 4월 14일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회 대표 김강의 보고서에서도 “공청 중앙위원회는 조선과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대중신문』, 『조선지광』, 『청년조선』 등과 같은 몇 개의 잡지와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 기관지들은 대중과 공청원 전반을 계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산주의 대오의 통합과 무원칙한 분파주의와의 투쟁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⁴²⁾ 1927년 10월 27일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회 만주총국 책임비서 이종희와 선전부장 김광은이 국제공청 집행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동간도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조선지광』과 『대중신문』을 토대로 집계 토의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⁴³⁾ 계몽을 위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보고서들은 『조선지광』이 ‘통일조선공산당’의 고려공산청년회 기관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1928년 2월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조선공산당 제3차 당대회에서는 “『조선지광』을 당기관지로 지정하고 이성태를 책임자로 결정”하였다. 이성태는 이날 선임된 7인의 중앙위원 중 한 명이였다.⁴⁴⁾ 공청 기관지에서 당 기관지로 승격이라고 할까.⁴⁵⁾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전인 2월 2일에 기자인 하필원이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었다.⁴⁶⁾ 하필원도 조선공산당의 중앙집행위원이었다. 이어 6월 19일에 이성태가 종로

249면.

41) 이재훈 역, 앞의 책, 145면.

42) 이재훈 역, 앞의 책, 224면.

43) 이재훈 역, 앞의 책, 241면.

44) 임경석, 「1927년 조선공산당의 분열과 성격」, 『사림』 61, 수선사학회, 2017, 152면.

45) 필자는 앞의 논문에서 1928년 2월 이전에는 당 기관지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조선지광』이 조선공산당과 관련 없고 오히려 고려공산동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통일조선공산당’의 결성 과정과 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었다. 이 논문을 통해 정정한다.

경찰서에, 8월 25일에 오재현이 경기도경찰부에 체포되었다. 조선공산당 경기도책임자였던 김복진과⁴⁷⁾ 기자 김소익도 도피중이었다. 이후 조선공산당이나 고려공산청년회는 『조선지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1928년 10월 20일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도쿄의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청년조선』의 발간만 언급되었다.⁴⁸⁾ 이로 볼 때 아무리 늦어도 1928년 9월호인 제90호부터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기사를 일부 수록하더라도 당이나 공청과는 관련없다고 볼 수 있다.

공청이나 당에서 기관지를 주장해도 합법 잡지였던 만큼 내용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김강의 보고처럼 “대중과 공청원 전반의 계몽” 그리고 “공산주의 대오의 통합과 분파주의와 투쟁”하는데 『조선지광』의 역할이 있었다. 충실히 수행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이런 관점에서 월간지 전환 때부터 1928년 7월까지의 『조선지광』 편집과 그 이후를 분리해서 살펴봐야 하겠다.

발행인 김동혁이 1920년대 후반 조선공산당에 관계했다는 주장도 있지만⁴⁹⁾ 근거가 없다. 민족주의자인지 사회주의자인지, 실행가와 학자 중 무엇을 지향하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김동혁은 민족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아닌 백지(白紙)라 답했다. 또 학자가 아니라서 학구를 목표로 삼지 않지만 필요한 것은 연구해서 책임있는 것만 다 해보겠다고 하였다. 사상이 백지인만큼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극히 적다고 했다.⁵⁰⁾ 자기를 지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당원은 아니었다. 1920년대 후반에 신간회 경성지회 총무간사로 활동한 일⁵¹⁾ 외에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다. 1931년 8월의 김동혁 비판 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46) 「黨員姓名과 檢舉時日」, 『조선일보』 1929.11.1. 호외(1). “경성부 원남동 184(경남 하동군) 조선지광사 기자 하필원”.

47) 「金復鎭等 二十四名의 豫審終結決定全文(一)」, 『조선일보』 1930.6.25.호외(2). 1928년 2월 김복진은 이성태의 권유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고 경기도책임자로 되었다.

48) 이재훈 역, 앞의 책, 305면.

49) 김문중, 앞의 2007 논문, 15면.

50) 「諸氏의 聲明」, 『三千里』 6, 1930.5, 26면.

51) 京鍾警高秘 제13,162호(1927.11.19), 「新幹會 京城支會 總務幹事會에 關한 件」, 『思想問題에 關한 調查書類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파란을 지내오면서라도 잡지 「朝鮮之光」이 오늘까지 지속된 것은 전혀 씨의 묻고 느러진 힘에 잇는 것이외다. 그러나 정직한 말이 씨는 기자로나 경영자로나 조금도 적임이 아니라는 감을 금할 수가 없으니 첫재에 「朝鮮之光」이 표방하는 主義와 사상에 조금도 씨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요, 둘째에는 씨가 여러 해를 두고 경영해 왔으나 그만큼의 연령에 아직까지도 물적 고통을 받는 것이 경영술이 없는 것이요 셋재에는 씨가 기자로의 독자 대중의 心像을 붓잡지 못하여 충분히 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외다.⁵²⁾

기사를 쓴 1931년 8월이면 거의 97호까지 나왔을 때다. 망하지 않고 계속 『조선지광』이 발행된 데는 김동혁의 힘이 컸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기자나 경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무엇보다 『조선지광』이 표방하는 주의와 사상에 조금도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였다. 다른 말로 사회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 김동혁을 편집자로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IV. 『조선지광』의 편집과 기획

『조선지광』 편집은 대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월간으로 전환한 1926년 11월호부터로서 『조선지광』의 주요한 기획과 코너가 이때 시작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27년 9월호 이후로서 독자의 확대를 위해서 지면의 연성화를 꾀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28년 9월호부터인데 이성태를 비롯한 조선공산당원 기자들의 구속으로 발행인 김동혁이 편집을 주도하던 때다. <표 2>에서는 『조선지광』의 주요 기획을 정리했다.

52) 金萬, 「雜誌記者 漫評」, 『東光』 24, 1931.8, 64면.

〈표 2〉 월간 『조선지광』의 주요 기획

연도	통권	월호	시사 평단	신어 사전	6호실	현미경	강좌	수필	문예 시평
1926	61호	11월호							김기진
	62호	12월호	晩悟生						김기진
1927	63호	신년특대호							
	64호	2월호		乎于	○				김기진
	65호	3월호		乎于	○				김기진
	66호	4월특대호	晩吾生		○				김기진
	67호	5월호			○				김기진
	68호	6월호	晩悟生 拏山生		○				
	69호	7월호	晩悟生	필원	○				
	70호	8월호			○				박영희
	71호	9월호	晩吾生	필원			○	○	박영희
	72호	10월호	晩吾生				○	○	윤기정
	73호	11월호					○	○	윤기정
	74호	12월호		언필			○		윤기정
1928	75호	신년호	晩吾生					○	
	76호	2월호						○	
	77호	3·4월합병호	晩吾生				○	○	
	78호	5월호	晩吾生	편집부			○	○	
	79호	7월호	晩吾生	편집부			○		
	80호	9월호		편집부			○		
	81호	11·12월 합병호	S生				○	○	윤기정

1926~1932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1929	82호	신년특대호	晩吾生				○	○	
	83호	2월호	KM生	편집부	○		○		한설야
	84호	4월특별호	晩吾生	편집부	○		○	○	한설야
	85호	6월특집	晩吾生	편집부		○	○	○	한설야
	86호	8월호	晩吾生	편집부		○	○		윤기정
	87호	9월특집		편집부		○	○		
	88호	11월호	SS生	편집부	○		○	○	
1930	89호	신년호	晩吾生	편집부			○	○	유진오
	90호	3월호	성재生	편집부			○	○	
	91호	6월호	晩吾生	편집부			○	○	
	92호	8월호						○	
	93호	11월호		편집부			○		
1931	94호	1·2월합호		편집부			○		
	95호	4월호					○		
	96호	5월호	ㅅㅇ生				○		
1932	100호	1월호		일기자			○		

월간으로 전환했던 1926년 11월 제61호의 편집후기를 보면 『조선지광』의 편집방침을 대략 알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紙面을 公開할 方針이다. 엇더한 理論이든지 躊躇치 말고 投稿해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理論」의 體系만 具備한 것이기만 하면 反對해야 될 餘地의 것이라도 發表해줄 作定이다. 또 自然科學의 方面의 論文이나 「이야기」 갖흔 것도 늘 계속해서 研究的으로, 解說的으로, 또 趣味的으로 記載할 생각이다. 그런대 遺憾되는 것은 이 方面의 智識이 잇는 사람, 研究의 蓄積이 잇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그것도 애써 그 方面의 專門家에게 付託해서 할 수 잇는 데까지, 우리 힘에 자라는 대로 실니겠다. 그래서 當面한 時事에 對한 論評, 또 社會科學의 研究 紹介, 趣味, 娛樂에 關한 것 自然科學의 研究, 文藝創作 及 翻譯의 各方面에 巨해서 編輯範圍를 擴張할 생각이다. 그럼으로 엇더한 한편만의 생각만을 가지고 이 「朝鮮之光」을 읽으시려는 讀者에게는 어느 意味의 失望을 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엇절 수 업는 일이다.(61호, 1926년 11월호)

어떤 하나의 입장에 서지 않고 체계만 섰다면 반대편의 글이라도 발표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지면을 공개할 테니 어떤 이론이라도 주저치 말고 투고하라고 독려했다. 1927년 초에 한치진 등 유심론자의 글이 『조선지광』에 실린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투고였다. 조선에는 적절한 필자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싹졌다는 약속도 했다. 그 외 시사논평, 최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연구 소개, 취미와 오락, 창작과 번역 등의 문예 등 각 방면으로 잡지의 관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넓게 보아 ‘잡지화’, 좁게는 시사잡지 또는 종합잡지로 나가겠다는 포부였다.

“어느 한편만의 생각만을 가지고” 읽으려는 독자는 실망할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어느 한 편을 위한 잡지였다. 월간 전환 후 편집 방향에서 첫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론투쟁으로서 그 수단은 논문이었다. 61호에서 논문란은 “좀 自慢이 생길만치 맘이 든든”해서 앞으로 더욱 여기에 신경을 써서 넓은 범위로 편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1927년 2월의 74호에서는 특색있는 논문을 몇 편이나마 실어서 2월호의 자랑거리라 했다. 3월의 65호도 논문의 내용이 비교적 볼만한 것이 많고 수에서도 종전보다 충실해서 “본호의 특색”이라고 스스로 만족했다. 1927년 7월의 제69호는 원고를 모으는대로 편집하다보니 딱딱한 글로만 가득했는데 “딱딱한 학술문제가 물렁물렁한 취미문보다 실제에 잇서 유익”하다는 입장은 여전했다.

이렇게 논문을 실으니 예상했던대로 문제가 발생했다. “識者란 사람들”만 알게 될 어려운 글이거나 “너무 머리쌀이 압호도록 싹싹하고 智的”이라서⁵³⁾ 일반 독자들의 원성이 있었다. 무엇보다 검열로 인한 글자의 삭제, 곧 복자(伏字)의 문제였다. 한두 글자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줄, 두 줄 심지어는 한 면 전체를 ×자로 도배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독정치를 비판하고 혁명을 주장하느라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지만 문맥과 논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면 필자에게나 독자에게나 면목이 서지 않았다. 편집자가 반복해서 말하듯이 조선 “언론의 수준”이었다. 『조선지광』은 언제든지 항상 “창상의 傷處를 얼굴에 담복 담”은 “반병어리”의⁵⁴⁾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논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1927년 2월의 제64호에서는 어떤 문제를 던져서 그 문제가 문제로 토의되면 자신들의 집의 반은 벗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은

53) 「編輯餘言」, 『朝鮮之光』 72, 1927.10.

54) 「編輯餘言」, 『朝鮮之光』 73, 1927.11.

일은 성급하게 굴지말고 바른 길을 열기 위한 “쓰기있는 理論의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의 제73호에서도 이론투쟁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허용된 곳에서는 늘 활발하고 열심히 전개해야 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 예로 노정환(盧正煥)의⁵⁵⁾ 「新幹會에 對한 任務」를 들고, 이 논문이 당면한 현실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에 대한 견해의 발단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노정환의 신간회에 대한 주장이나 견해에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투고해 달라고 하였다. 자신들이 발표할 수 있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독자의 앞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당면한 모든 문제의 토의가 더욱 왕성해지고 이러한 가운데 가장 올바른 길을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⁵⁶⁾

논단에 포함된 논문은 편집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는 곳으로서 책임감도 막중하였다. 1928년 신년호에서 일년 안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당면 문제가 많다면서 조선신흥운동에 대한 정책, 전술 통일 문제, 전민족적 협동전선당으로서 신간회의 확대와 지지 문제, 언론집회결사 문제 등은 1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되고 결성되고 전화(轉化)되고 문제의 단결(端結)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모두 ‘우리’ 힘으로만 해결하고 획득할 수 있는 문제였다. 1927년에 전개된 각종 이론투쟁에 상당한 진전과 수확이 있었다면서 자평하면서도 이론투쟁은 완결된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선지광은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중차대한 사명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⁵⁷⁾ 오로지 왕성한 논쟁이 조선지광을 통해 전개되기를 바라고 계획하였다.⁵⁸⁾

월간 『조선지광』에서 주간 때와 달라진 부분은 문예란의 확대였다. 주보 시절엔 분량 탓도 있지만 소설 한 편과 가끔 문예비평 정도가 실렸다. 월간 전환 후에는 여러 편의 소설과 희곡, 시를 비롯해서 평론이 다수 지면을 차지했다. <표 1>에서도 보듯이 전체 지면의 1/3 또는 절반 이상이였다.⁵⁹⁾ 월간으로 전환 직후인 제64호와

55) 노정환은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인 안광천의 필명이였다.

56) 「編輯餘言」, 『朝鮮之光』 73, 1927.11.

57) 「編輯餘言」, 『朝鮮之光』 75, 1928.1.

58) 「編輯餘言」, 『朝鮮之光』 76, 1928.2.

59) 유석환은 1926년부터 1930년까지 『조선지광』의 문학 비중과 장르별 비중이 평균 42.2%였다고 하였다. 이 시기 동안 별다른 증감없이 그 수준을 유지했으며, 식민지기에 간행된 다른 시사종합잡지들의 평균 문학비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였다.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제65호에 문예면이 과도하게 많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외부의 비난을 받으면 서도 편집진은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다. “編輯方針上 苦情”으로써 그에 응답할 수밖에 없음을 흡족치 못하게 생각한다거나(64호) 현재의 형편으로는 부득이한 일로서 어쩔든 “우리는 現在에 滿足을 얻을 수 업는 이만큼 將來의 期待가 만흔 것”을 스스로 기뻐할 뿐이라고 답하였다(65호). 문예란의 확대는 카프와 연관성이 있을 듯하다. 문예시평의 집필자가 김기진, 박영희, 윤기정으로 카프의 주요 간부들이었다.⁶⁰⁾ 이론투쟁은 논문뿐 아니라 비평을 통해서도 이뤄졌는데 그 주요 대상이 조선문단과 염상섭 등이었다.

「신문지법」으로 발행되는 시사잡지로서 조선지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지면이 시평 또는 시사평단이었다. 주보 때도 있었지만 월간 전환 직후인 제62호부터 시평을 실었다.⁶¹⁾ 사정으로 몇 개월을 쉬었을 때도 “本號부터는 時事問題에 對한 短評 갖흔 것을 반드시 掲載”하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중요한 지면이었다.(65호). 초기에는 중국과 영국 등 국제정세 위주로 다루었지만 점차 일본과 조선의 당면 과제를 평하였다. 「편집여언」과 함께 『조선지광』의 입장을 드러내는 코너였다. 몇 회를 빼고는 만오생이⁶²⁾ 꾸준히 집필하였다.

제1기의 주요 기획이 논문(논단)과 문예, 시평이었다면 제2기는 수필과 강좌, 신어사전, 자료란이었다. 『조선지광』은 1927년 8월호 「사고」에서 “너무 고급 또는 난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서 9월호부터 “지면을 평이하게 민중화” 한다는 지면 개혁을 예고하였다.⁶³⁾ 9월호에서 예전과 다르게 눈에 띄는 지면은 문인 7명의 가을을 소재로 한 수필과 조선일보의 이관구 등 명사 5인의 결혼관과 연애관이었다.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로서 가벼운 수필이었다. 조선지광사는 이 ‘개혁호’로 이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동시에 “타락이라는 논란”도 많이

역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136면.

(60) 카프 맹원이 주도한 「문예시평」의 성격을 보려면 다음 글을 참고할 것. 강용훈, 「월평의 형성 과정과 월평 방식의 변화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3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394~396면.
 (61) 장문석은 1927년 3월의 제65호부터 「육호실」이 시작되어 1927년 10월의 제72호부터 「시사평단」으로 개편되었다고 했지만(장문석, 앞의 글, 366면) <표 2>에서 보듯이 사실과 다르다.
 (62) 만오생은 발행인 김동혁일 것으로 추정한다. 『왜정시대인물사료』 1권에 따르면 김동혁의 이명은 晩梧이고, 『조선지광』의 필명은 주로 晩吾를 쓰되 가끔 晩梧로 표기하였다.
 (63) 「社告」, 『朝鮮之光』 70, 1927.8.

받았다면서 그 논란이 합리성을 가짐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부분의 독자만 아는 어려운 글이나 머리가 너무 아픈 지적이고 딱딱한 글에만 구속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종합적 또는 대중화라는 초기의 목표를 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논전이나 문장 외에 취미와 오락의 온갖 것을 채택할 터인데 무엇보다 독자의 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⁶⁴⁾

1927년 10월호의 수필란에는 「공산당공관 인상기」와 「妾薄命」이 실렸다. 11월호는 「근우회의 토론회를 보고서」와 「보로딘은 엇더한 사람인가」, 12월호는 공창문제를 다룬 「침박명」과 「노농로서아와 부인」을 수필로 분류하였다. 수필이지만 주제는 점차 무거워졌다. 좀 더 글을 쉽게 쓰고 많은 독자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은 제74호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⁶⁵⁾ 그리고 수필의 연성화는 제76호부터 조금씩 이뤄졌다.

수필과 함께 제71호부터 새롭게 강좌를 시작했다.⁶⁶⁾ 제71호부터 제74호까지 「사회과학강좌」라는 이름을 붙였다. 송언필(수양산인)의⁶⁷⁾ 「경제사강좌」(71호)와 「경제발달사강좌」(72~74호)가 연재되었다. 제73호에는 「통속변증법강좌」가 함께 게재되었다. 제77호부터 제100호까지 「자유대학강좌」의 틀 속에서 「생물과 인류」(77~85), 「천문과 지리」(86~100)를 장기 연재했다. 「생물과 인류」의 강좌 기획 의도를 보면, 세상에 생물학을 다룬 저서가 많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관찰하여 쓴 드문 책이라서 발췌번역하여 소개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야마모토(山本直治)로서 무산자유대학에 기고된 글을 저본으로 하였다.⁶⁸⁾ 야마모토가 이 책을 통해 독자, 곧 무산계급에게 원했던 것은 “유물사관과 진화론의 교섭이 극히 밀접”⁶⁹⁾함을 드러내기

64) 「編輯餘言」, 『조선지광』 72, 1927.10.

65) 「編輯餘言」, 『조선지광』 77, 1928.4. “압호로는 더욱이 그러할 줄 믿거니와 오는 五月號부터는 讀者諸君의 投稿가 만히 오기를 기다린다. 우리로서도 될 수 있는대로 省略이 (××)이 적도록, 또 너무 어렵고 단단한 理論的 學術方面에만 기우러지지 안도록, 그래서 좀더 平易하게 좀더 大衆化하게 倍舊의 노력을 애기지 안을 것을 이에 宣言한다.”

66) 최병구는 강좌를 “사회주의 대중화 전략”으로 평가했다. 최병구, 「1920년대 사회주의 대중화 전략과 『조선문예』」, 『반교어문연구』 37, 반교어문학회, 2014, 207~208면.

67) 제1회는 首陽山人으로 시작했다가 제2회부터 宋彦彌로 기재하였다.

68) 金少翼, 「生物과 人類-生物界一般의 靜的 觀察과 그 方法」, 『조선지광』 77, 1928.4, 63면.

69) 一記者, 「生物과 人類(完)」, 『조선지광』 85, 1929.6, 55면.

위협이었다. 그런데 번역자 김소익은 연재중이던 1929년 7월호 발간 이후 경찰의 체포를 피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기자(一記者)의 이름으로 연재되었다. 번역인 까닭도 있지만 기획의 취지를 여전히 인정하기에 담당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연재가 이어졌다.

신어사전은 이미 예전에 안광천(于平)이 「신어해석」으로 시작하여 하필원이 「신어사전」으로 이어받았다. 연재라 하기에는 너무 띄엄띄엄 게재되었다. 그나마 하필원이 1928년 2월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중지되었는데 『조선지광』 편집부가 1928년 5월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독자에게 필요할 듯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호 게재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⁷⁰⁾ 안광천이 선택한 신어는 정치적 투쟁, 당, 강령, 개량주의, 경제투쟁, 자연생장성적 의식(이상 64호), 좌경, 우경, 타협, 비약(이상 65호) 등 당시 맹렬히 전개되던 논쟁과 관련된 단어였다. 하필원은 제69호에서는 제국주의, 트러스트, 변증법을 소개하다가 제71호부터⁷¹⁾ 당면 정세와 관계없이 ‘ㄱ’으로 시작되는 ‘가의 부’로 시작하였다. 편집부는 하필원의 기획을 이어받아 제87호까지 ‘가의 부’를 총 10회 연재하였다. 이어 ‘나의 부’를 제88호와 제89호에, 제90호부터 제100호까지는 ‘다의 부’로 계속하였다.⁷²⁾ 제100호에서 「신어사전」을 「무산자사전」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이성태와 하필원이 체포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선지광』은 1928년 5월의 제78호부터 새로운 기획을 선보였다. 사회일지와 일반통계로 구성된 자료란이었다. “정리는 성공의 어머니”일뿐아니라 “엄격하고 세밀한 객관적 규정 없이 과학적 임무를 다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대상의 분석은 모은 운동의 전제”임을 덧붙였다. 일반통계는 독자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래서 독자들이 힘닿는 대로 자기 지방의 노동자와 농민의 경제상태를 조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⁷³⁾

70) 「編輯後記」, 『조선지광』 77, 1928.5.

71) 목차에는 편집부였으나 본문의 사전 끝에 ‘필원’이라고 밝혔다.

72) 장성규는 『조선지광』 신어사전의 담화 구성 전략을 첫째 참조 원전이 명기되고, 둘째 가나다 순으로 주요 개념을 연관시켜 하나의 종합적 지식체계를 구성하려는 기획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성규, 「식민지 근대성과 두 개의 ‘지식’ 개념-근대 지식 개념의 형성·경합·분화(2)」, 『춘원연구학보』 20, 춘원연구학회, 2021, 183-186면.

73) 朝鮮之光編輯部, 「讀者諸君에게 告한다」, 『조선지광』 78, 1928.5, 50면. 경제상태를 예로 들면 부채는 얼마며, 농작은 몇 두락을 짓는지, 그 수입과 지출, 가족수, 가족수까지 조사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면비, 군의 모든 사업, 금융조합, 축산조합, 삼림조합 등이 독자의 현실 생활에 얼마만한

우선 사회일지는 1928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매일의 주요한 사건을 조선, 일본, 중국, 국제관계(국제정세)로 나눠 정리했다. 7월호에서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다. 조선편에서는 일지의 상단에 춘천, 함흥 같은 지역명을 함께 썼다. 조선의 경우 이 사회일지만 보면 전국 각 단체 집회의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제78호(5월호)에 실린 통계는 경성여직공통계, 1928년 현재 조선인 직업별 인구통계표였다. 전자에는 회사명, 위치, 직공수, 노동시간, 임금, 자본금, 경영주의 민족 등을 수록했다. 제79호(7월호)와 제80호(9월호)에는 직접세 부담액표를 연재했다. 편집부의 야심찬 기획은 연이어 편집기자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이어지지 못했다. 제87호(1929년 9월)에 사회일지를 재개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만성적인 원고난과 경영난에 얽힌 데 덮친 격으로 1928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선지광사 직원들의 체포와 도피가 잇달았다. 잡지 『조선지광』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조선지광사의 구성원들이 조선공산당과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의 간부로 활동중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9월호는 나왔지만 다시 체제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문예란은 여전했고 시사평단이나 신어사전, 강좌, 수필 등도 기존의 관성대로 계속되었다.

조공이나 공청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발행인 김동혁의 기획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1929년 2월호부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태의 선악을 단평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현미경」이란 코너를 만들었지만 단명에 그쳤다. 이 시기의 특징은 특집호의 발행이었다. 1929년 4월의 ‘졸업논문호’, 5월의 ‘생활문제개신호’, 9월의 ‘농촌당면문제호’가 나왔다. 세 특집 모두 치밀한 계획 속에 나온 기획이 아니라 다소 즉흥적이어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졸업논문호’는 1929년 3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경성제국대학 특집호였다. 조선인 학생의 연구를 일반에 소개하는 자체가 “朝鮮文化史上 必要한 일”이라 여겼지만 기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편집부가 밝힌 실패 이유는, 첫째로 졸업논문이 장편이라 적은 지면에 담을 수 없었고, 둘째로 졸업생 대부분이 고향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원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자의 이유로 간기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경제과, 철학과, 문과, 법과 졸업생 네 명이 자기 논문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쳤다.⁷⁴⁾

이익을 주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74) 「編輯餘言」, 『조선지광』 84, 1929.4.

‘생활문제개신회’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다. 생활개신회운동은 당시 조선일보사가 활발히 전개하였다. 『조선지광』은 이 특집이 어떤 일부, 곧 조선일보에서 실제화하려는 운동을 비판하거나 조장하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이미 많이 논의된 주제지만 운동으로 나오기는 처음인데 이때 여러 의견을 소개해서 독자에게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명사의 의견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편집부조차 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하였다.⁷⁵⁾ 오히려 도쿄에서 투고한 김일영의 글은 조선일보의 생활개신회운동을 맹렬히 비판하였다.⁷⁶⁾

‘농촌당면문제회’도 ‘생활문제개신회’처럼 여러 명사의 의견을 나열만 하였다. 다방면의 의견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며 별로 취할 내용이 없는 글도 있다고 자평하였다. 김동혁은 동아일보에 재직할 때도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졌고,⁷⁷⁾ 『조선지광』에 실명으로 쓴 글이 농촌의 현실을 다루었는데도⁷⁸⁾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우리는 이 잡지로 하여금 모든 思想의 百貨陳列館을 만드지 안키에 더 힘을 쓸려 한다. 비록 一言半句의 글이라도 特히 大衆의 要求에 聯結식히지 안으면 안될 것을 注意하려 한다. 그 舛답에 요새 活字幻覺의 德分에 名聲을 들내고 잇는 所謂 「名士의 論文」은 勿論, 似而非 思想家의 글도 환영치 안는다. 더구나 頹廢계급群의 變態性慾을 마취식히는 「에로」記事나 懷古主義와 愛土主義의 古典的 慷慨의 記事 가튼 것을 願하는 讀者는 當初부터 이런 雜誌에 손을 대일 필요도 업슬 것이다. 그리고 大衆의 行列에 步調를 가티 맞추려는 意識을 갖고 십거던 이 本誌를 내 몸과 가티 愛讀하여야 할 것이다.(96호, 1931년 5월)

75) 「編輯餘言」, 『조선지광』 85, 1929.6.

76) 金一英, 「生活改新運動에 對하여」, 『조선지광』 85, 1929.6, 22-28면.

77) 晚悟生, 「朝鮮農村의 現在와 將來」, 『동아일보』 1921.8.14.(1); 晚悟生, 「危機에 陷한 나무리벨(1-7)」, 『동아일보』 1921.9.26(1)~10.3(1)

78) 金東赫, 「日本人口問題와 朝鮮의 産米政策」, 『조선지광』 66, 1927.4; 金東赫, 「日本の 人口問題와 朝鮮의 産米政策에 關하여」, 『조선지광』 67, 1927.5; 金東赫, 「朝鮮의 農業의 現狀은 엇더한가?」, 『조선지광』 72, 1927.10; 金東赫, 「農村當面問題로서의 農民組合」, 『조선지광』 77, 1928.4; 金東赫, 「農民組合과 그 組織에 對하여」, 『조선지광』 78, 1928.5.

1931년 상반기에 나오던 유력한 잡지는 『삼천리』, 『별건곤』, 『동광』, 『해성』 등이었다. 특정 기사를 언급하면서 경쟁 잡지를 비판하는 방식이었다. 이 글은 무엇을 신지 않겠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 “대중의 요구에 연결”하거나 “대중의 행렬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폐간에 이르렀다.

V. 조선지광사의 경영

월간으로 전환된 1926년 11월호의 「편집여언」에는 구독료와 관련해 조선지광사의 단호한 결심을 엿볼 수 있다.

실상 朝鮮사람들은 新聞代金이나 雜誌代金 갖흔 것을 잘안내는 - 보기는 보아도 - 못된 버르쟁이가 있다. 雜誌를 만들려면 돈이 안들고는 되지 안는 것이다. 싸라 雜誌 읽고 십흔 사람은 적어도 誌代만은 準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첫재 雜誌經營 하는 사람이 雜誌를 해나갈 수 잇는 것이다. 인저부터 우리는 無代로는 冊 한 卷도 그저 보내줄 생각은 하지 안으려 한다. 그러다가는 맞참내 雜誌도 못나고 말터이다.

원래 조선사람은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도 대금을 잘 내지 않는 못된 버릇을 가졌는데 조선지광사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책도 없다고 선언했다. 공짜로 구독하면 잡지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선언으로 독자들이 대금을 제때 낼 것 같으면 경영난이 있을 리 없었다. 『조선지광』 외에도 대다수의 ‘사회주의 잡지’들은 거의 매호마다 구독료의 확보와 밀린 잡지값의 독촉을 빼놓지 않았다.⁷⁹⁾ 조선지광사도 선금과 구독료 납부를 권고하거나 애원하였는데 시기마다 다르다.

先金이 아니면 絶對로 發送하지 안으려고 한다.(62호, 1926년 12월호)

우리는 월래 代金이 오지 안는 支社나 分賣店, 或은 社友에게 (個人讀者는 勿

79) 김문중, 앞의 2007 논문, 26~27면.

論이오) 雜誌를 發送치 안은 規定으로 鐵則을 삼아왔고 이 때문에 만흔 非難도 밧았지마는 압흐로도 우리는 이 方針을 더욱 싸를 것이어니와 讀者諸君도 더욱 압흐로는 先金注文을 만히 해줄 것을 밧는다. 또 代金이 오지안은 支社나 分賣 店에 雜誌 發送이 停止된 곳이 만흔데 그런 地方에 잇는 個人讀者는 本사로 直接 注文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엇더케든지 缺號는 하지 안을 方針이니 新聞 에 廣告가 나거나 말거나 꼭꼭 注文해 주기를 바란다.(77호, 1928년 4월호)

雜誌代金! 이것은 每號마다 特言하는 바이지마는 諸君이 참으로 「朝光」의 眞 實한 讀者가 되라거든 代金を 迅速히 보내주기를 바란다. 더구나 支社나 分社에 그것을 바라는 바이다.(80호, 1928년 9월호)

誌代에 對하야는 從來에 累累이 煩告하였지마는 本誌의 生命은 讀者諸位에게 잇는 줄 안다. 誌代는 반드시 先金注文 해주기 바라며 愛讀者諸氏는 新讀者를 만히 募集해주기 바란다.(90호, 1930년 3월호)

各支分社와 委託販賣所에서는 本誌의 從前號 代金を 速히 清算해 주시는 同時 에 압흐로는 代金이 積滯되지 안도록 每月末에 無遠計算해 주시기 바란다. 이로 因하야 本誌의 經理上 支障이 만흔을 深諒해 주시면 幸甚일가 한다.(91호, 1930 년 6월호)

항상 경제난이었지만 매월 정기발행하던 1927년과 그 이후의 상황이 다르다. 1926년 12월호에서는 선금이 아니면 절대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927년에는 독자나 지분사에 대금 납부를 독려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었다. 1928년 4월에는 가능한 선금 주문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원칙을 잘 지킬 수 없는 사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떻게 하든지 결호를 내지 않을 테니 신문광고에 관계 없이 주문을 당부했다. 1928년에 처음으로 합병호를 낸 뒤 독자들이 결호에 따른 손해 때문에 선주문을 꺼려할지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걱정은 현실로 되었다. 그 뒤부터는 미납된 대금의 납부 독촉이 주된 내용이었다.

비록 제때 수금하지 못했지만 『조선지광』의 구독료 수입은 어느 정도였을까. 구독료 수입을 알려면 우선 구독자 수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구독자 수에 근접한 자료는 경무국 도서관이 매년 집계한 발매반포 부수이다.

〈표 3〉 각도별 반포 상황

	1925.9	1926.9	1927.12	1928	1929	1931
경기	62(0)	26(8)	203(51)	386(5)	304(0)	317(1)
충북	0(0)	3(0)	22(1)	12(0)	14(10)	22(0)
충남	0(0)	2(0)	0(0)	3(0)	2(0)	6(0)
전북	7(0)	47(0)	66(4)	75(2)	53(2)	1(0)
전남	6(2)	7(2)	108(6)	20(0)	25(2)	113(0)
경북	13(9)	0(0)	76(0)	73(0)	42(0)	35(0)
경남	0(0)	85(0)	89(1)	57(39)	36(12)	84(0)
황해	4(0)	29(0)	74(1)	80(3)	108(0)	4(0)
평남	1(0)	2(0)	32(0)	23(0)	0(0)	8(0)
평북	0(0)	0(0)	1(1)	3(0)	12(0)	62(0)
강원	0(0)	0(0)	8(8)	0(0)	0(0)	25(0)
함남	0(0)	62(0)	125(2)	48(0)	43(1)	1(0)
함북	0(0)	0(0)	16(1)	6(0)	0(0)	0(0)
계	93(11)	265(10)	820(76)	787(49)	639(27)	687(1)
해외	0	131	54	41	69	0
합계	93	396	874	828	708	687

출전: 朝鮮總督府 警務局, 『大正十四年 新聞紙要覽』, 13면;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課, 『大正十五年 昭和元年分 新聞紙要覽』, 85면; 『昭和二年度 新聞紙出版物要項』, 19면;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四年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32면;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五年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32면;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七年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32면.

비고: ()안은 일본인

설치 시기를 구분하지 않은 조선지광사의 지분국 수는 경기 2, 강원 2, 충북 1, 충남 2, 경북 2, 경남 3, 전북 5, 전남 4, 황해 1, 평남 1, 평북 1, 함남 4, 함북 1, 해외 2 등 총 31곳이었다. 뒷 시기에 창간된 사회주의잡지들보다 훨씬 적다.⁸⁰⁾ 지분국이 없을 경우 우편 구독을 하고 경성에서는 서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었다.

지분국이 적고 우편 구독이나 서점 구매를 생각해도 반포부수가 예상밖으로 적다.

80) 김문중, 앞의 2007 논문, 35면.

하지만 주간일 때보다 월간일 때, 논쟁이 활발하던 1927년을 정점으로 내리막이라는 추세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의 신뢰도를 확인하려고 압수 부수를 살펴보았다.

<표 4> 행정처분 및 집행 압수 부수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⁸¹⁾		계	
	처분	부수	처분	부수	처분	부수	처분	부수	처분	부수	처분	부수	처분	부수
1월						7								7
2월														
3월														
4월			1										1	
5월	1	100											1	100
6월		4									1		1	4
7월												1000		1000
8월														
9월														
10월														
11월				515										515
12월			1										1	
계	1	104	2	515	0	7	0	0	0	0	1	1000	4	1526

출전: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課, 『大正十五年昭和元年分 新聞紙要覽』, 123면; 『昭和二年度 新聞紙 出版物要項』, 105면;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四年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133~135면; 朝鮮總督府 警務局, 『昭和七年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88~90면

1926년 11월 이후 『조선지광』은 세 차례 발매반포금지, 곧 압수를 당했다. 첫 번째는 1927년 4월호(제66호)였는데⁸²⁾ 호외, 곧 임시호를 발행하지 않았다.⁸³⁾ 두

81) 1월의 611부, 3월의 249부는 『民衆新聞』의 압수 부수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82) 「朝鮮之光 押收 號外發行은」, 『중외일보』 1927.3.31.(2). “사월특별호는 당국으로부터 압수를 당하였는데 그뒤에 부드친 것은 김운영(金雲汀)군의 각보 「잔설」(殘雪)과 삼훈(三勳)군의 정치운동(政治運動)의 「에이·씨·씨」와 계급대립(階級對立)과 계급문학(階級文學)이라더라”

83) 「朝鮮之光 押收」, 『동아일보』 1927.3.31.(5).

번째는 1927년 12월호로서 따로 언론 보도는 없고, 1928년 1월호 「편집여언」에 발매 금지 사실이 실렸다. 세 번째는 1931년 7·8월합병호(제97호)였다.

〈표 4〉에 따르면 1927년 4월의 발매반포금지 때 압수된 책은 없었다. 김문중은 제66호의 발행금지 압수에도 독자의 손에 전해진 사례를 제시했는데⁸⁴⁾ 통계의 잘못 이라기보다 행정명령이 늦게 내려진 까닭이 아닌가 한다. 1927년 12월호는 두 달에 걸쳐 522부가 압수되었다.⁸⁵⁾ 〈표 3〉의 1927년 12월 현재 국내 발매반포부수가 820 부였는데 이때도 경찰은 전부를 압수하는 데 실패했다. 1931년 7·8월합병호의 「신간소개」가 8월 2일자에 실렸는데⁸⁶⁾ 지분국이나 서점에 배포되기도 전에 천부가 압수되었다. 경찰은 대동인쇄주식회사에서 “발간된 책 전부”를 압수했다.⁸⁷⁾ 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앞서 본 874와 828이라는 숫자에서 『조선지광』의 초판 발행 부수를 천 부로 추측할 수 있다.⁸⁸⁾ 다만 1927년 8월호의 “3천이 넘지 못하는 독자를 가지고”라는 문장은⁸⁹⁾ 여전히 곱씹을 여지가 있다.

이처럼 신문지법으로 발행하는 잡지였지만 광고 비중이 높은 신문과 다르게 조선지광사의 주 수입원은 구독료였다. 광고 수입이 거의 없었다. 애초 기대를 하지 않은 듯이 광고 단가를 밝히지 않고 판권지에 광고를 원하면 따로 편집부에 연락하라고 하였다. 광고 영업을 하지 않고 오는 광고만 받는 듯한 자세였다. 아래 〈표 5〉는 광고 지면의 현황이다.

84) 김문중, 앞의 2007 논문, 21면.

85) 표에는 12월이 아닌 11월에 515부의 압수를 표시했는데, 12월의 잘못이다.

86) 「新刊紹介」, 『조선일보』 1931.8.2(4)

87) 「朝鮮之光押收」, 『조선일보』 1931.8.2(2)

88)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課, 『大正十五年昭和元年分 新聞紙要覽』, 123면. 참고로 『개벽』의 압수 부수는 1926년 6월에 2,129부, 7월에 1,005부였다. 신문을 보면 1926년에 동아일보 342,390부, 조선일보 566,342부, 시대일보 136,995부가 압수당했다.

89) 「編輯餘言」, 『朝鮮之光』 70, 1927.8.

〈표 5〉 월간 『조선지광』의 광고 면수

연도	통권	광고 면수				계	社告	뒷표지
		전	중	후	뒷표지			
1926	61호					0		
	62호	2		4	1	7		和平堂藥房
1927	63호							실물 확인 못함
	64호	2	6		1	9		社會科學社
	65호	2			1	3		DK라디오商會
	66호	2			1	3		朝鮮賣藥株式會社
	67호	1			1	2		조선매약주식회사
	68호	1			△	2		
	69호	2		1	1	4		社會科學硏究社
	70호	1		1	1	4		사회과학연구소
	71호				△	1	2	
	72호	0.5			1	1.5	1.5	사회과학연구소
	73호	1			1	2	1	사회과학연구소
	74호	0.5			1	1.5	1.5	사회과학연구소
1928	75호	4		4	1	9		조선매약주식회사
	76호	1		1	1	3	1	사회과학연구소
	77호	1		1	△	3	1	
	78호			2	△	3	1	
	79호	2.5				2.5	0.5	조선지광사(民村)
	80호			1	1	2	1	時文社
	81호	2			1	3	1	朝鮮總督府鐵道局
1929	82호	2		2	△	4	1	
	83호	1.5			1	2.5	0.5	조선매약주식회사
	84호	2		2	1	5	1	조선매약주식회사
	85호	1.5			1	2.5	1	조선총독부철도국
	86호	1		1	1	3	1	조선매약주식회사
	87호	1			△	2	1	
	88호			1		1	1	조선지광사(民村)

1930	89호	1		3	1	5	2	조선총독부철도국
	90호	2		2	1	5	1	大潮社
	91호	2			1	3		조선총독부철도국
	92호			0.5	1	1.5	1	대조사
	93호			3.5		3.5	1	조선지광사(民村)
1931	94호	1		4	1	6	1	조선총독부철도국

비고: △는 낙장으로 확인 불가

광고 지면은 목차 앞 뒤로 한 두면, 판권지 앞으로 1~4면이었다. 광고 지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나 회사의 명함 광고가 모두 35.5면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지광』에 연재했던 이기영의 『민촌』이 16.5면으로서⁹⁰⁾ 조선지광사의 광고였다. 이어 사회과학연구사가 14면, 시문사 8면, 조선총독부 철도국과 조선매약주식회사(영신환)가 각 6면이었다. 『백두산근참기』를 광고한 한성도서주식회사가 4.5면, 잡지사인 무산자사와 대조사가 각 3면이었다. 사고는 7.5면이었다. 광고주의 성격으로 보면 출판사가 조선지광사를 제외하고도 45면이었고, 포함하면 61.5면이었다. 기업상점 광고는 17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조선지광』의 정가 변동이다. 주간이었던 1926년 9월호의 정가는 10전으로서 1개월에 40전이였다. 분량도 40면이었다. 월간인 1926년 11월호부터는 한 부에 50전, 일년에 5원 50전으로 인상하고 특대호는 증액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1927년 8월호부터 30전으로 인하했다가 1929년 1월부터 40전으로 다시 인상을 했다. 잡지가 뒤죽박죽으로 나오고 발행하기에 급급하던 1930년 8월에 ‘본호 한정’으로 20전을 매겼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46배판으로 판형을 바꾼 1931년 5월호부터 20전으로 고정하였다. 물론 예외도 있어서 1931년 1·2월 합병호는 30전, 1931년 7·8월 합병호는 10전이였다.

90) <표 4>에서 조선지광사의 『민촌』은 광고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에 포함하였다.

〈표 6〉 월간 『조선지광』의 정가 변동

	정가					우편요금
	1책	3책	6책	1년	특대호	
1926년 11월	50전	1원 50전	2원 80전	5원 50전	50전 ⁹¹⁾	1책만 2전
1927년 8월	30전	85전	1원 60전	3원	50전 ⁹²⁾	없음
1927년 10월	-	-	1원 65전	-	증액	없음
1929년 1월	40전	1원 15전	2원 25전	4원	50전 ⁹³⁾	없음
1931년 5월	20전	60전	1원 20전	2원 40전	증액	1책만 2전

정가는 분량에 비례하지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조선지광사는 1927년 8월부터 기존의 50전을 30전으로 대폭 인하했다. 사고에서 정가 인하는 매우 용기를 낸 무리한 결정이라면서도 종래의 지면으로 50전은 너무 비싼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⁹⁴⁾ 같은 호의 「편집여언」에서는 비싸게 50전을 받았던 사정과 그런데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길지만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號부터 定價을 三拾錢으로 내렸다. 지금까지 우리 朝鮮에서 經營하는 出版物이 다른 나라에 比하면 여간 高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出版部數에 따라서 定해지는 것인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케 빚싼 것이 된다. 실상 우리 「朝鮮之光」이 가지는 것만한 頁數- 百五十頁 平均 -를 가지고 또 三千이 넘지 못하는 讀者를 가지고 從來 五拾錢 받는 것은 打算上으로 보면 그러케 빚싼 것은 아니다. 입세까지 朝鮮에서 雜誌出版으로 그 自體가 收支를 計算해가며 自營해 나간 것은 하나도 없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다. 朝鮮사람은 讀書할 만한 經濟的 餘裕가 없다는 것과 讀書熱이 不足한 것과 그 탓해서 오는 댓가지가 있다.

讀者들에게서는 雜誌값이 너무 빚싸다는 非難을 받고 그래도 收支의 計算은 어렵도 업시 맞지 못하고 이러케 해오면서 經營難에 빠져 온 것이다. 기위 損

91) 1927년 4월특별호가 50전이였다.

92) 1928년 1월 신년호가 50전이였다.

93) 1929년 1월 신년특대호, 4월 졸업논문호, 6월 생활개신문제호, 9월 농촌당면문제호 등의 특대호가 50전이였다.

94) 「社告」, 『조선지광』 70, 1927.8.

해나는 일이면 값을 훨씬 더 내리서 讀者나 만히 느리자. 하는 생각도 해오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마는 원악 經營難에 빠져있는 當時의 形便으로는 그만한 것을 勇斷할만한 勇氣가 안생기는 것은 勿論이오 값을 내리고 안내리는 것을 거의 問題로써 성립도 되지 안었다.

지금도 우리가 定價을 내리는 것은 그만한 準備가 완성이 되어서 그리는 것은 아니다. 大資本 압해서의 小資本의 沒落, 적게 팔니고 값이 빗싼 것은 顧客도 만히 生産하고 만히 팔리고 또 험한 것에게로 (일본의 『改造』와 갓치) 다라나는 것은 엇질 수 업는 일이다. 小資本의 沒落의 悲哀를 늦기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잇는 言論의 任務를 社會的으로 찾는 곳에서 수판을 튕겨내버리면서 값을 내려보는 것이다. 여하간 우리는 이래서 定價을 三拾錢까지 내렸다. 頁數는 勿論 前과 맞찬가지면서.

요약하면 평균 출판부수가 적은 조선에서 매호 150면 이상의 잡지 가격으로 50전은 비싸다고 할 수가 없다. 박리다매가 가능한 일본의 『改造』 같은 대자본에게나 가능할 뿐이었다. 독자들이 비싸다고 비난해도 3천을 넘지 못하는 구독자로서는 50전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가를 내리는 까닭은 50전을 유지할 경우 대자본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몰락할 줄 알지만 “언론의 임무”나마 다하자는 이유였다.

조선지광사의 가격 인하가 구독자의 확대에 기여했는지 그래서 경영난을 덜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정기발행과 잡지의 성격이 구독자의 확보와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 정기 발행이 무산되면서 독자가 이탈하고, 잡지가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서 빈약해지고 그 결과로 가격을 더 내리는 일이 생겼다. 가격이 20전까지 내려갔지만 독자수는 더 늘지 않았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월간 『조선지광』의 발행상황, 편집방침, 경영, 공산당과 관계 등을 살펴 보았다. 본문에서는 각각의 논의에 집중했지만 맺음말에서는 『조선지광』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조선지광』이 자주 어려움을 호소한 원고난, 경영난은 상수(常數)였다.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원고난은 청탁, 독자 투고 양면에서 발생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필자의 부족은 조선의 현실이었다. 『조선지광』처럼 사회주의 계열의 필자 의존도가 높은 잡지는 고등경찰의 대형 조직사건 검거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잡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지광』만의 어려움은 아니었다. 오히려 혹독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압수를 세 번밖에 당하지 않은 것이 주간 발행 당시와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구독료를 잘 내지 않는 현상도 『조선지광』만의 문제라 볼 수 없었다. 오히려 50전일 때 『조선지광』의 발행부수는 조선어로 발행되는 여타의 잡지보다 많았다.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았을 뿐 종교를 뒷배로 둔 잡지 외에는 형편이 좋은 편이었다.

결국 『조선지광』의 성격은 공산당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있었다. 조선공산당의 고려공산청년회는 당 결성 이전에도 『신흥청년』과 『조선지광』을 공산주의그룹의 기관지로 삼으려 했다. 조공 결성 이후 주간으로 발행되던 무렵에는 공청의 지도하에 발행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1925년 12월과 1926년 6월의 두 차례 대규모 검거 이후에도 공청은 『조선지광』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공청은 조선공산당의 공청과 고려공산동맹의 공청이 통합한 ‘합청’이었다. 『조선지광』 내에는 이성태와 하필원 등 양 조직의 핵심이 섞였지만 하필원은 1926년 12월 이후 조공의 중앙위원이었고, 이성태는 1928년 2월에 중앙위원 겸 당기관지로 승격한 『조선지광』의 책임자로 되었다.

1926년 11월의 월간 전환 이후 1927년의 『조선지광』은 조선의 논전을 이끌었다. 조공과 공청의 주요 간부들이 여러 논쟁, 이를테면 신간회와 중앙사회단체협의회를 둘러싼 논쟁에 참여했다.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혁명적이어서 복자로 가득한 지면이었지만 신간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각종 사회운동이 분출하던 때여서 독자들의 반응도 적극적이었다. 공청의 교양수단으로 사용된 것도 부수 확대에 일조했다. 유심-유물 논쟁이 전개되었고, 카프를 중심으로된 문예면도 문학논쟁을 벌이면서 작품을 발표했다. 「신문지법」 잡지로서의 역할을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때였다. 월간 전환 이후 제61호부터 제70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1927년 9월의 ‘지면의 대중화’ 시도는 기존의 당원, 지식인 외에 독자층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였다. 수필란과 강좌를 신설했다. 딱딱하지 않은 수필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강좌로 사회주의 이론 학습의 기초를 다지려는 기획이었다. 신어사전의

재개도 같은 맥락이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정가도 50전에서 30전으로 내렸다. 경무국 도서과가 집계한 1927년 말과 1928년의 발행부수는 800권대로 정점이었다. ‘지면의 대중화’가 진행되던 1928년 2월 『조선지광』은 조공의 기관지로 되면서 당중앙위원인 이성태가 책임을 맡았다. 조공과 관계가 밀접해진 동시에 2월부터 8월까지 조선지광사 사원을 향한 고등경찰의 검거가 잇달았다. 편집부원의 빈자리 때문에 없던 결호와 합병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71호부터 제79호였다.

1928년 9월호는 어쩔 수 없이 『조선지광』 또는 김동혁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때였다. 조공도 해산했지만 다수 사원이 검거되거나 피신했다. 조공이나 공청의 자금이 흘러온 흔적은 없지만 주요한 독자층의 일부가 당원이나 공청원이었다. 논전을 조직적으로 주도할 사람도, 논문도 없었다. 검거의 여파는 오래 갔다.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는 분명했는데 아젠다를 주도하지 못했다. 1929년은 특집호 기획 등으로 어떻게 버텼지만 신선하지 못했다. 내용은 고사하고 종잡을 수 없는 발행 간기 때문에 있던 독자도 떨어져 갔다. 전혀 이질적인 경영진을 영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강제 폐간된 『개벽』의 아우라까지는 아니라도 『조선지광』의 마지막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참고문헌

- 이완중 역, 『러시아문서보관소자료집 3-고려공산청년회 1』, 한울, 2022
- 이재훈 역, 『러시아문서보관소자료집 4-고려공산청년회 2』, 한울, 2022
-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 강용훈, 「월평의 형성 과정과 월평 방식의 변화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3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 金根洙, 「文化政治 標榜時代(前期)의 雜誌概觀(1920~1929)」, 金根洙 編著,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 永信이카데미 韓國學研究所, 1973
-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 1925년부터 1936년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지국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4),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 김민환, 「일제하 좌파 잡지의 사회주의 논설 내용 분석」, 『한국언론학보』 49(1), 한국언론학회, 2005
- 김영진, 「1927년 하반기 식민지 정치운동 논쟁」, 『역사연구』 42, 역사학연구소, 2021
- 박민철 · 이병수, 「192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맑스주의 수용 양상과 의미」, 『한국학연구』 5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박종린, 「1920년대 ‘통일조선공산당’의 결성과정」, 『한국사연구』 102, 1998
-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유재천, 「일제하 한국잡지의 공산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8
- 이병태, 「1920년대 『조선지광』의 유물론 수용이 지닌 사상사적 함의: 주요 논쟁 분석 및 『개벽』 유물론 수용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8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 임경석, 「1927년 조선공산당의 분열과 성격」, 『사림』 61, 수선사학회, 2017
- 장문석, 「사회주의와 통계-연구노트」,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 장성규, 「식민지 근대성과 두 개의 ‘지식’ 개념-근대 지식 개념의 형성·경합·분화(2)」, 『춘원연구학보』 20, 춘원연구학회, 2021
- 장신, 「『週報 朝鮮之光』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 최병구, 「‘신체의 유물론’과 프로문학」, 『민족문화사연구』 53, 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_____, 「1920년대 사회주의 대중화 전략과 『조선문예』, 『반교어문연구』 37, 반교어문학회, 2014

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 역학」,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Editorial Evolution and Operational Challenges of *The Chosun Chi Kwang*: A Monthly Magazine's Journey from 1926 to 1932

Jang Shin

This article analyses the monthly publication *THE CHOSUN CHI KWANG* (Joseon Ji Gwang, 朝鮮之光, initially translated as *THE LIGHT* at launch, and hereby stylized as *The Chosun Chi Kwang*). *The Chosun Chi Kwang* was a current affairs magazine that was first published in November 1922 and ceased publication with its 101st issue in March 1932. This article specifically covers the period from November 1926, when it began monthly publication. It delves into various aspects including publication circumstances, editorial policies, manag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st Party. The analysis is structured around the three distinct phases based on editorial changes.

The first phase spans from November 1926 (Issue 61) to August 1927 (Issue 70). During this time, Koryo Communist Youth Group (高麗共產青年會), a part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朝鮮共產黨), used it as their official organ as a means of communication. Key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and the Youth Group actively participated in editing and contributing articles. Through debates and discussions, they attempted to intervene and guide both the national movement and social movements. The publication and management were relatively stable, and the editorial framework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persisted until the final issue.

The second phase, from September 1927 (Issue 71) to July 1928 (Issue 79), focused on expanding readership beyond party members and intellectuals. Efforts were made to popularize the content by introducing new sections like essays and lectures, providing readers with cultural knowledge and reading material. Reducing the price from 50 to 30 jeon was also aimed at increasing the readership. However, from February 1928, when it became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issues began to arise.

The arrest and detention of staff members associated with the Party led to a crisis for *The Chosun Chi Kwang*. This period saw the first occurrences of missed and combined issues.

The third and final phase lasted from September 1928 (Issue 80) to March 1932 (Issue 101). Continuous arrests and escapes of staff members led to the collapse of the existing editorial team, and the association with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was severed. Although socialist tendencies remained, the magazine's identity became ambiguous. Frequent missed issues and delays in publication resulted in a declining readership and severe financial difficulties. This vicious cycle continued until the magazine quietly ceased publication with its 101st issue.

Key Words : Communist Party of Korea, Koryo Communist Youth Group, Kim Dong-hyuk, Censorship, KAPF (Korean Artists Proletarian Federation)

